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최근 원자재난의 현황과 특징

- (현황) 최근 에너지, 곡물 등은 어느정도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공업원료들의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음
- (특징) 외국은행의 신용장 인수 거부, 수입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물량제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(대책) 금융 지원 외에 유동 구조 개선 등의 조치들이 필요함

○ 원자재 수급 현황

- 최근 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추세에 따라 원자재 수급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
-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원료와 나프타 등 기초 소재, 그리고 곡물류의 경우 적정 재고 이상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임

< 에너지·기초소재·곡물류의 재고 보유 현황 >

재고량	원유·석유 (백만배럴)	LNG(천톤)	LPG(천톤)	나프타 (백만배럴)	밀(천톤)	원당(천톤)
적정	108(55일분)	350(7일)	308(17일)	650	456(60일)	101(25일)
보유	115(58일분)	555(11일)	344(20일)	648	302(40일)	93(23일)
확보(도입예정포함)	133(68일분)	2,153(47일)	400(23일)	1,050	542(71일)	201(50일)

※ 에너지, 기초소재는 3월7일, 곡물류는 2월12일 현재

-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업 원료와 중간재들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임

- 수입업체들을 통해 공급되는 많은 원자재들이 실수요자인 중소제조업체들에게 원활히 공급되고 있지 못해 가동을 저하, 수출 차질 등을 빚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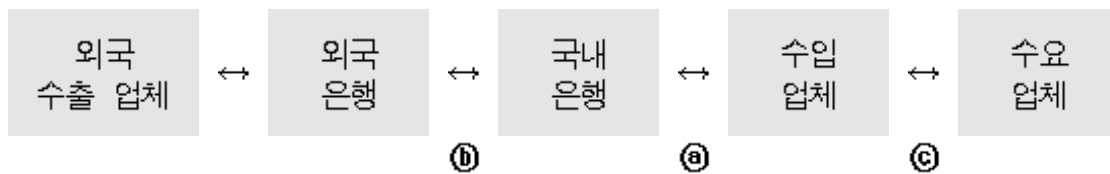
< 주요 공업원료의 원자재난 현황 >

분야	현황
섬유·피혁	· 원피의 재고량은 적정수준의 30%인 9천톤(9일분), 원면의 재고량은 40%인 1만7천톤(22일분)에 불과 · 원모, 원면, 염료, 원단 등의 국내가격이 70~100% 상승 · 가동율이 면방업체는 60%, 피혁업체는 40% 수준으로 하락
조립금속·전자	· 시계 업계의 경우 핵심 부품인 무브먼트의 물량부족으로 수출 애로 · 인쇄 회로기판, 위성수신기 등은 원자재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수출을 중단 · 전자계측기, 컴퓨터 등 수출 차질
금속	· 알루미늄 가격이 지난해말 kg당 1천6백50원에서 3천원으로 92.8%상승 · 아연, 스텐레스강, 니켈 등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의 50~70%

○ 최근 원자재 수급난의 특징

- 국내 은행의 신용장 개설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나, 원자재 수급의 연쇄 고리에서 새로운 장애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
- 그동안의 정부의 여러 조치들로 국내 은행들의 수입신용장 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장애들이 수급 연쇄 고리의 전방과 후방에서 나타나고 있음
- 즉 아래 그림에서 ㉠부분의 경색은 완화된 반면 ㉡와 ㉢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임

< 원자재 수급의 연쇄 고리 >



- ㉡부분

-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이 발행한 신용장(L/C)을 인수하지 않고 있음. 한국의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 유수 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장 인수 한도를 대폭 줄였기 때문임
- 그에 따라 국내 은행의 신용장을 받고도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

- ㉢부분

- 수입업체의 횡포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원자재의 실수요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음
- 수입업체들이 현금이 아니면 물건 공급을 중단
- 수입업체들 및 중간상의 사재기와 방출제한, 가격담합 등이 성행
-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(로컬 거래)하더라도 외화표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(한국은행 무역금융취급세칙) 수요업체의 환차손 부담이 과도함

- ㉠부분

- 신용장 개설은 이루지지만 국내은행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함
- 수입신용장 개설 때 지급보증수수료로 징수하는 텀차지(Term Charge)를 종전의 수출용원자재 0.1%, 내수용 0.18%(3개월 기준)에서 각각 0.2%와 0.25%로 올림.
- 로컬신용장 개설수수료도 0.065%에서 0.1%로 올림

- 대기업은 원자재 조달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조달난은 가중되고 있음
 - 신용도가 높고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대기업들은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임
 - 반면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업체들의 횡포를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요가 에너지나 기초소재 이외의 분야에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음.
 - 이에 더하여 중소하청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모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

○ 대책

- 자금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 대책과 더불어 유통 구조 개선 등 국내에서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함
 - 산업 전반에 걸친 중소제조업체들의 원자재난은 작년말의 에너지 및 기초소재 관련 원자재난에 비해 다급성은 덜 해 보이지만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해 볼 때 그 파장은 심각할 것임
 - 정부는 지금까지 조달청 등을 통한 신용장 개설 대행,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신용보증 등 신용장 개설 애로 대책과 원자재 도입 자금 지원 등 자금난 완화 대책을 펴왔음
 - 이러한 대책들과 더불어 앞으로는 수입 원자재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와 수입 및 유통업자들의 횡포를 근절하는 조치가 필요함
 - 나아가 로컬거래시 외화표시에 의한 대금결제 등 현 상황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도록 해야 함

(김 창 옥 cwkim@hri.co.kr ☎724-4044)